

트럼프가 용납 못 할 “중국에 세세”

태평로



안용현
논설위원

1차 세계 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독일 외무장관이 멕시코 주재 대사에게 비밀 전문을 보냈다. “미국이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멕시코에 동맹을 제의한다. 멕시코가 미국과 전쟁해 빼앗긴 텍사스·애리조나 등 영토를 회복하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은 아메리카 패권을 건드리겠다는 독일 발상에 참전을 결정한다.

2차 대전 초 영국 처칠이 SOS를 썼는데도 미국은 미지근하게 반응했다. 오히려 미국 기업들은 독일·일본과 현금 거래를 하며 큰돈을 벌었다. 그런데 나치가 유럽을 석권하고, 일제가 중국·동남아시아 세력을 키우자 미국 전략가들 생각이 달라졌다. 나치와 일제의 패권화를 치명적 위협으로 봤다. 일제가 진주만을 공습했다.

미국은 1·2차 대전으로 패권국이 됐다. 어느 패권국처럼 경쟁국에는 냉혹하고 한 치도 양보가 없다. 함께 싸운 미국 루스벨트와 소련 스탈린 사이는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모스크바의 미국 외교관 조지 캐넌은 1946년 소련 봉쇄를 주장하는 ‘롱 텔레그램(긴 전문)’을 워싱턴에 보냈다. 냉전이 본격화했

다. 미국은 소련을 무너뜨리고자, 혐오하던 중국 공산당과도 손을 잡았다. 고립된 소련은 붕괴했다.

미국이 2001년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용인한 것은 미국 질서에 편입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은 과거처럼 자기들이 패권국이 되려 했다. 2013년 시진핑이 돌연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미군 비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다. 주일 미군 사격장도 일방적으로 포획했다. 중국이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건드린 것이다. 시진핑은 “태평양은 미·중이 공존하기에 충분히 넓

中共 접근해 소련 붕괴시킨 美이젠 反中 위해 푸틴 접근까지 트럼프 목표는 ‘중국 공격’뿐 패권국, 어설픈 동맹은 무시

다”고 했다. 미국은 기존 패권을 반분하지는 말로 이해했다. 역사상 패권을 스스로 잘라준 세력은 없다.

미 전략가들은 1·2차 대전, 냉전 때처럼 움직였다. 국무부는 2020년 중국 봉쇄를 담은 ‘롱 텔레그램’을 준비했다. 지금 미국의 전략 목표물은 중국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화·민주 차이도 없다. 반중(反中)을 위해 바이든은 동맹을 선택하고, 트럼프는 압박한다는 차이 정도다. 미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12일 트럼프와 러시아 푸틴의 만남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트

럼프가 푸틴을 끌어당기려는 것도 결국은 중국 견제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 탄핵 국면에서 미국 조야는 야권이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에 “대통령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폈다”는 내용을 넣을 것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측근은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언급했다.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 가능성을 벌써 우려하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작년 총선 때 “왜 중국을 적대시하냐”라고 말한 뒤 손을 맞잡는 동작을 하며 “(중국에) 그냥 세세(고합다), 대만에도 ‘세세’ 이러면 되지”라고 했다. 국장급인 주한 중국 대사 옆에 앉아 “미국 승리, 중국 패배에 베포는 잘못”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미국이 모를 리 없다.

미·중이 공존을 모색할 때는 한국의 전략적 공간이 있었다. 미·중 사이에서 국익을 추구하는 ‘균형 외교’도 가능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중국과 전쟁도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의 협력을 왜곡하여 강조했잖나. 군사력에서 미국의 유일한 열세가 군함 보유 규모이기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의 외교·안보·경제 라인도 전부 대중 강경파다. 북핵 문제도 대중 견제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다. 패권국은 어설픈 동맹의 손을 잡고 전쟁하지 않는다. ‘미국에도 세세, 중국에도 세세’ 하는 나라는 어느 쪽에서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 트럼프 취임이 일주일도 안 남았다.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65]

천사를 보았다

19세기 중반, 프랑스 화가 쿠르베는 천사를 그려달라는 교회의 요청을 거부하며, ‘천사를 보여주면 그리겠다’고 했다. 그에게 현실에 없는 존재를 그리는 건 거짓에 불과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를 살았던 영국 화가 에드워드 번-존스(Edward Burne-Jones, 1833~1898)는 주로 성경, 전설, 신화에 등장하는 천사와 요정을 그렸다.

번-존스의 대표적인 천사 그림이 여섯 폭으로 이루어진 ‘창조의 날들’이다. 그는 창세기에 나온 대로, 신께서 옛세 동안 세상을 창조한 과정을 그리면서, 천사 여섯이 각각 커다란 수경 구슬 하나씩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구현했다. 빛과 어둠을 가른 첫날에는 거대한 날개로 온몸을 감싼 창백한 얼굴의 천사가 흑백으로 나뉜 구슬을 들고, 마치 물위를 걷는 듯 명망 바다에 섰다. 처음 ‘창

조의 날들’을 본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천사들의 눈이 지혜와 사랑의 빛을 머금었고, 그들의 날개에는 강인한 힘과 지극한 아름다움이 깃들었다’고 찬미했다.

‘창조의 날들’은 1870년 번-존스의 동업자이자 절친이던 윌리엄 모리스가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를 제작하기 위한 밑그림으로 의뢰한 것이었다. 당시 번-존스는 신랄한 악평을 연달아 받고 전신을 완전히 멈춘 상태였다. 그는 아홉 살이던 모리스의 큰딸 제니를 모델로 천사를 그리기 시작했다. 사랑을 듬뿍 받던 제니는 명문대 입학 허가를 받을 정도로 영민한 아이였지만, 1876년 그림이 완성될 즈음에는 심한 뇌전증으로 부모 품을 떠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번-존스가 쿠르베의 사실주의를 몰랐을 리 없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지나, 천사라도 믿고 싶었을 것이다. 포스트백 교수·서양미술사

에드워드 번-존스, 창조의 날들: 첫째 날, 1870~6년. 목판에 수채와 과슈, 금박 등, 102.2×35.5cm, 케임브리지 하버드대학교 포그미술관 소장.



社說

“카톡 성역 아니다” 전 국민 ‘입틀막’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카카오톡이 가짜 뉴스 성역인가”라며 “가짜 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당력을 집중해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허위 정보를 제보받았다며 ‘민주과출소’라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그런데 일반인들끼리 나누는 카톡이라도 거기에 가짜 뉴스로 신고하면, 민주당이 그 내용을 검토해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크게 잘못된 발상이다.

카카오톡은 우리 국민 거의 모두가 쓰는 메신저 프로그램이다. 정치인이나 공직자, 언론 등이 공적,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발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적인 대화다. 카톡에 올라오는 정치적 발언 역시 한정된 일반인들끼리 하는 사적 대화일 뿐이다. 그 대화 중에 사실에 맞지 않는 것이 있고 정도가 심한 경우도 있지만 공인도 아닌 일반 국민에게 범죄 혐의까지 씌우는 일은 매우 신중히 해야 하고 극히 예외적이어야 한다. 국민의 언론 자유를 아예 봉쇄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를 장악하고 대통령을 탄핵해 현실적 권력으로 등장한 정당이 카톡 대화를 감시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겁박하는 일과 다를 게 없다.

대선 조급증李 “최대행이 혼란 주범” 3차 탄핵 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당회의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主犯)이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대행에게 ‘주범’이란 말은 국언에 가깝다. 이 대표는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등을 거론하면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는데 불법적으로 저항하는 행위는 왜 방치하느냐” “공방이 되려 하느냐”고도 했다.

이 대표는 최대행에게 “주범”이라고 공격한 뒤 불과 30분 만에 최대행을 만났다. 미리 잡힌 약속이었다. 최 대행 면전에서 주범이나 공범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 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어도 불상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자 이 대표는 “범인 잡는데 저항할까 봐 잡지 말아야 한다”와 비슷한 얘기 아니냐”고 했다.

비상계엄으로 예기치 못한 헌정 위기를 일으킨 것은 윤 대통령이다. 그러나 이 사태가 오기까지 민주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 무려 29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을 냈지만 거의 모두 근거가 없었다. 심지어 취임해 일할 시간도 없었던 사람도 탄핵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했다. 이 모두가 헌정 위기를 부추기는 행위들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윤 대통령

‘가짜 뉴스’ 판단을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도 옳지 않다. 민주당은 해아리기도 힘들 만큼 많은 가짜 뉴스를 공표해 왔다. 그 가짜 뉴스들의 해악은 카톡에서 일반인들이 나누는 사적 대화보다 훨씬 크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에 책임을 졌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최근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형수나 형과 실제로 했던 통화를 ‘가짜 뉴스’로 분류했다. 민주당은 부산 금정구청 보선에 대한 김어준씨 영터러 여론조사엔 가만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는 고발한다고 한다. 결국 민주당에 불리하면 가짜 뉴스로 찍어 카톡까지 검열해 전 국민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 아닌가.

지금 여야로 나뉜 유튜버들이 확인되지도 않은 소문을 진짜인 양 퍼뜨리면서 돈을 버는 현상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법적 규제가 미비한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런 법적 문제를 고만해본 적이 없다. 도리어 가짜 뉴스를 양산한다고 비판받는 김어준씨를 때려잡고 있지 않다. 아무리 정권이 눈앞에 왔다고 생각한다 해도 카톡 검열과 같은 반민주적 발상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탄핵소추안에 들어있던 ‘내란죄’를 현재의 탄핵심판에서 갑자기 철회했다. 그러더니 내란특검에 돌연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해 군의 정상적 활동마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이 역시 헌정을 위태롭게 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공수처와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충돌해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무조건 윤 대통령을 끌어내라고 압박하고 있다.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이 대표는 감당할 수 있나. 설사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명예를 벗지 못할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윤 대통령 1차 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최대행의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위협했다. 이재명은 최대행이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 위험적 요소를 배제한 특검안을 요청하자 “주범”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곧 최대행마저 탄핵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우리나라는 대헌대행대행 체제가 된다. 국력과 신용등급이 온전할 수 없다.

이 모든 일은 이 대표가 자신의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선을 치르겠다는 조급증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법을 벗어날 수는 없는 일이다. 대선 조급증을 버리고 흥결 맺는 탄핵 심판과 수사가 이뤄져 법집사가 회복되도록 앞장서야 한다.

韓 대기업 초봉 日 1.5배, 그 이면의 어두운 그늘

지난 2023년에 국내 대졸 정규직의 초임이 연평균 3675만원이고 이 가운데 300인 이상 대기업은 초임이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었다(5001만원). 물가를 반영한 구매력평가 환율로 환산하면 평균 4만5401달러였다. 일본(3만4794달러)보다 30%가량 높다. 또 500인 이상 대기업의 대졸 초임(5만7568달러)은 일본 1000인 이상 대기업 초임(3만6466달러)의 1.58배였다. 1000인 이상 대기업 초임을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졸 초임은 1인당 GDP의 99.2% 수준이고, 일본은 72.7% 선이다. 중소기업까지 합친 전체 대졸 초임을 1인당 GDP와 비교해도 한국(78.2%)이 일본(69.4%)보다 높다. 지난해 우리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2.5배에 달하는 세계 4위 경제 대국이다. 이런 나라보다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생산성도 그에 비례해서 높아야 하는데 과연 그런가.

높은 대졸 임금으로 경제 고비용 구조가 형성되는 것도 문제지

만, 더 심각한 것은 같은 대졸이어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에 따라 임금 격차가 현격하게 벌어지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대졸 초임은 대기업의 64.7%에 불과하다. 10~99인 사업체의 대졸 초임은 100이라고 볼 때, 일본 대기업은 대졸 초임이 114.4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49.3이나 된다.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현격하게 난다는 의미다. 이러니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극심한 구인난을 호소하고, 청년층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기피하면서 갈 만한 직장이 없다고 구직난을 호소하고 있다.

경총은 우리 대기업의 고임금이 연공형 임금 체계, 귀족 노조 프리미엄이 더해져 결과라고 분석한다. 생산성에 근거한 합당한 고임금이 아니라는 뜻이다. 과도한 고임금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대기업은 대졸 초임 인상을 자제해야 하고 연공형 임금체계 대신 성과 보상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노동 개혁이 궁극적인 해법이지만 하세월이다.

뉴데일리 newdaily.co.kr

오늘의 <한국 내전> 상황

전황 확 바뀐 4가지 사연, 각 2개의 변수와 상수...尹 대통령 버텨라, 그래야 우리 함께 이긴다

- 유리한 점
 - ① 돌아온 2030
 - ② 치솟는 윤 대통령 지지
 - ③ 탄핵 세력의 패착
 - ④ 국제정세의 변화
- 불리한 점
 - ① 국방부+국수본+공수처의 만마음
 - ② 국힘 권영세-권성동의 기회주의
- 불변의 자산
 - ① 윤 대통령의 <꼭곳한 자세>
 - ② 자유 시민/국민의 <불같은 전의(戰意)>

대대적 반격

《한국 내전어떻게》가고 있나? 2025 벽두, 《전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자유진영 승리!》 1월 11~12일(토·일) 《평화문-한남동에 선 100만 자유인들의 함성》이 천지를 흔들었다. 무슨 사연 있었기에.



2030이 자유우파집회에 이렇게 많이 참석한 것은 처음. 연단에 올라 발언하는 한 서울대 학생. ©정성윤 기자

4가지 달라진 상황

- ① 돌아온 2030: 《자유 투쟁 현장에 2030 젊은이들이 대거 참여》했다. 그들은 외쳤다. “정치엔 관심 없었다. 그러나 요즘에 느끼기 시작했다. 이리다간 나라가 정말 망하겠구나. 그래서 나왔다.”
- ② 치솟는 윤 대통령 지지: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46%로 폭등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란 인식이다.
- 《윤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의 [상징]》이기에, 《상징이 깨지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위기감이다.
- ③ 탄핵 세력의 패착: ★ 《공수처+국수본+서부지

법+야권(野黨)의 《뽀짜미》 의혹. 이게 오히려 《현정 질서 문란》이란 주장도 있다 ★ 《고발은 내란죄로 하고, 《현재 질서 뺏 내란죄 뺏 것》 ★ 《일반 국민의 카톡까지 검열》하겠다는 발상 ★ 일부 언론들의 《아비한 논조》 이런 것들이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④ 국제정세의 변화: ☆ 《트럼프 측근이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 비공개 대화》를 한 것 ☆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헝가리 장관의 부정부패를 제재》한 것. ☆ 그렇다면 《한국 정치인도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배하면 무사하지 못할 터?》 ☆ 《해외 여론이 한국 자유 우파 투쟁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

불리한 것 2가지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 진영에 불리한 요소》도 물론 있다. ① 《국방부+국수본+공수처의 만마음》 ② 《권영세-권성동 국민의힘의 기회주의적인 처신》

확고한 것 2가지

그러나 이런 유풀리 사항들 여하간에, 《자유 진영은 두 가지 확고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① 윤석열 대통령의 《꼭곳한 자세》 ② 자유 시민/국민의 《불같은 전의(戰意)》 윤석열 대통령은 《내전 초기부터 《끝까지 싸울》 비장한 결기를 표출》했다. 이 자세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경수가 그러지 않으면, 국민도 백발지》이다.

《자유 국민의 사기도 올라가고》있다. 《광장의 집회 열기가 뜨겁다. 《우파도 이젠 투사》가 되었다. 《국회+기회주의의 지나침이 자유인들을 전사(戰士)로 만들었다. 그래서 전망한다.

끝까지 버티는 측이 구사일생한다. 윤석열 대통령 자유 국민, 그럴 수 있나? 그래야 한다. 이기기 위해.



《버티면 승리한다. 버티는 힘의 원동력은 이같은 저항의 몸짓과 함성이다.》 ©서성진 기자

※ 윤 대통령 46% 지지는 아시아투데이 의뢰, 한국여론 평판연구소 조사. 1월 10~11일 양일간 무선 ARS 1002명 응답(응답률 7.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상하 3.1%p. 상세 내용 선거여심위 홈페이지.

이류근 일
뉴데일리의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1월 12일 게재 되었습니다.